

오피니언

다산포럼

정지창



사람마다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 같은 기억이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다. 나의 경우에는 1980년 여름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보를 통한 밤낮으로 진술서를 쓰고 또 쓰고 했던 일이 지금도 악몽으로 남아 있다.

“자꾸 쓰다 보면 다 생각나게 돼 있어”라는 수사관의 다그침을 받으며 “더 길게, 더 자세하게” 수도 없이 진술서를 쓰다 보니 흐릿했던 지난 삶의 자취가 꽉나 상세하게 복원되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나지 않던 몇 년 전의 술자리에 누구누구가 있었고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도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.

개인의 자유와 암암은 무시한 채, 고문과 강압에 의한 진술서에 써놓은 또 다른 진술서를 강요하는 공공의 폭력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은 이후 일종의 트리우미처럼 나의 생각과 삶을 규정하고 속박해왔다. 그리고 글의 문면(텍스트)도 중요하지만 글이 썩 어진 전후사정(콘텍스트)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빠져나게 깨달았다.

겉으로는 논리적이고 객관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글도 어떤 의도나 강요에 의해

해 교묘하게 짜맞춘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서 나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가령 강요된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,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원자력산업 관계자의 논문이나 보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.